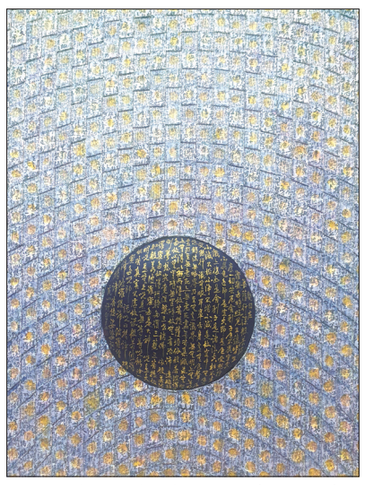
점, '진리의 꽃' 되다


허회태 작가의 작품 '진리의 꽃(心中有心)'.

이모그래피 장르 창시한
허회태 작가 초대개인전
60년 예술인생 회고 의미
8월 30일까지 한국서화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텍스트를 하나의 그림 문자로 형상화하는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한 허회태 작가는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 평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다. 서예를 기반으로 '이모그래피'를 만들고 이를 바탕해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세계는 무릇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 닮았다. 그의 예술인생을 회고하는 전시가 열린다.

허 작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한국서화관에서 '허회태 예술인생 60년, 내안의 꽃길'을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유교의 사유와 불교의 정진, 도교의 자연을 작품에 담아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켰고 그 우주는 지금도 확장 중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정주하지 않는다. 감정의 '이모션'과 회화의 '그래피'를 합쳐 '이모그래피'를 창시한 작가는 사유와 염원을 종이에 붓글씨로 쓰고 이를 입체조각으로 만들어 정신을 시각화·입체화한 감성조각 '이모스컬퓨처'로 나아갔다.

이번 작품은 점에서 시작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점들은 생명의 씨앗이 되고, 꽃이 되고, 산과 강이 되며, 마침내 우주가 된다. 그의 화면은 정지된 평면이 아니라 생성과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명의 장(場)이다.

작품은 동양철학의 근본적 사유와 깊게 연결된다. 만법귀일(萬法歸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돼 만물을 이루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허 작가의 점 역시 그렇다. 하나의 점은 미미하고 보잘 것 없지만 수십만 개의 점이 모이면 삶이 되고, 우주적 질서가 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진리의 꽃', '헤아림의 꽃길', '내 안의 꽃길', '내가 찾은 꽃길', '내가 품은 꽃길' 연작은 이러한 작가의 철학을 담은 정수이다.

꽃은 동양예술에서 오래전부터 생명과 희망, 깨달음의 상징이었다. 작품 속의 꽃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이 아니다. 그의 꽃은 인간의 내면이며, 수행의 결과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점들은 마치 인간이 살아오며 남긴 수많은 시간의 흔적처럼 보인다. 하루하루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기다림과 희망이 축적되어 결국 한 송이 꽃이 되는 것이다.

빛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과 조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은 살아 움직이며 서로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붉은 색채는 심장의 박동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푸른 색채는 깊은 명상과 침묵을 불러오며 녹색과 황금빛의 화면은 치유와 희망의 정서를 전한다. 작품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간이며 관람자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

허 작가는 "전시 작품들은 인간과 우주, 시간과 생명,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사유의 지도"라며 "꽃길 끝에서 우리는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깊은 언어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찰 해우소 3곳,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8월 4일 지정예고
생활공간까지 유산 범위 확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사찰 전통 화장실인 '해우소(解憂所)'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개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우소는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돼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지정 예고된 3곳은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초기 입지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다.

세 해우소는 모두 지붕 종도리 하부의 상량 묵서를 통해 건립 시기가 명확히 확인된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됐으며, 선암사 측간은 〈조계산선암사사적(1704)〉의 '청측' 기록, 일제강점기 선암사 전경 사진, 상량 묵서(1928년 수리)로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되어 변천해 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나아가 해우소는 '칠당가람(七堂伽藍)'의 하나로서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세 곳 모두 건립 이후 지금까지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뚜렷하다"면서 "이번 지정 예고는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⑤1 섭수절복(攝受折伏)

부처님은 현장 교육자

攝 受 折 伏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와 제자를 바르게 길러내는 일은 가장 숭고한 선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권위, 곧 교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학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훈육마저 문제 삼는 풍토 속에서 교육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북송 시대 문인 유영(劉頴)이 〈권학문(勸學文)〉에 남긴 경책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가르치되 엄하게 하지 않는 것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따뜻한 포용만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불교 승단은 제자를 이끄는 두 가지 교육법으로 섭수(攝受)와 절복(折伏)을 제시한다. 섭수가 따뜻하게 품어 주며 성장을 돕는 가르침이라면, 절복은 오만과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깨뜨려 바른길로 이끄는 교육이다.

절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붓다와 삿차카의 만남이다. 삿차카는 "나와 논쟁하여 떨지 않을 자는 없다. 마른 나무조차 내 논리를 만나면 땀을 흘릴 것"이라며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던 인물이었다. 붓다는 그가 내세운 오온(五蘊) 사상의 허점을 차례로 짚어 교만을 무너뜨리셨다. 끝내 답변을 회피하자, 붓다는 그의 머리 위에 집금강신의 환영을 보게 하셨다. 삿차카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위압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껍데기를 깨뜨려 참된 배움으로 이끄는 절복이었다.

반면 어린 사미 라훌라를 교화하는 장면에서는 절복과 섭수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라훌라가 거짓말을 반복하자, 붓다는 발 씻은 물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일삼는 삶은 이 더러운 물과 같다"라고 일깨우신 뒤 그릇을 뒤엎으셨다. 이어 거울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거울로 얼굴을 비추듯,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아라."

거짓된 습성은 단호히 끊어 내되, 스스로를 성찰할 힘은 따뜻하게 길러 주신 것이다. 절복과 섭수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붓다의 절복에는 사사로운 분노가 없다. 분노가 개입하는 순간 절복은 폭력이 된다. 붓다에게 오만한 사상가도 어린 제자도 모두 본래 빛나는 보석이었다. 무명(無明)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에 절복으로 허물을 깨뜨리고, 섭수로 마음을 보듬어 주셨다. 섭수만으로는 아집을 허물 수 없고, 절복만으로는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 봄바람처럼 품고 서릿발처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붓다가 보여준 교육이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훈육조차 의심받는 사회에서는 섭수도 절복도 온전히 살아나기 어렵다. 붓다는 오래전에 이미 그 길을 밝혀 놓았다. 섭수와 절복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오늘 우리 교육이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 길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석학들이 말하는 사찰음식 지속가능성

문화사업단, 8월 20일 심포지엄

세계 음식학 석학들이 한국불교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0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6년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음식의 미래 변화와 사찰음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2025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국제 학술행사로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심포지엄의 시작은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의 기조강연으로 알린다. 미국에서는 양종집 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가 '세계 미식문화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제발표 하며 이탈리아에서는 마달레나 보르사토 미식과학대학 교수가 '단맛의 회복 : 체화된 지식과 환대 사이'를 전한다. 일본에서는 정진요리 전문가인 조동종 보문사 주지 요시무라 쇼요 스님이 '조동종 정진요리의 변화 철학과 현대 지속가능성'을 발표하며, 한국에서는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솔잎 수행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외초청자 및 발표자들을 위한 사찰음식 팸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월 17일~18일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및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8월 19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사찰음식 시연이 진행된다. 또한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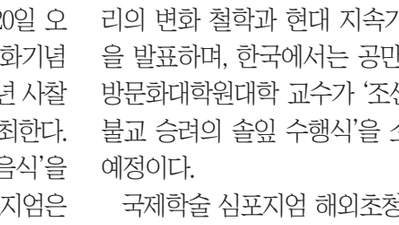


태양광 칼라 미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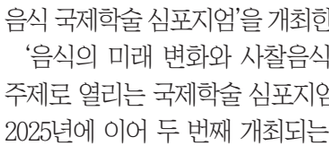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